

복무부적응 병사의 군생활 패턴

이은주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Military Life Pattern of Maladjusted Soldiers

Eun-Joo Lee

Department of Nursing, Korea Bibl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군 생활 경험과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장소는 A지역 복무 부적응 병사 치유 프로그램 진행장소이고, 연구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였다.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 경험 패턴을 분석한 결과로 입대 초기 영역, 입대 중기 영역, 적응 실패 영역의 3개의 영역과, 5개의 문화적 주제, 12개의 범주, 29개의 속성으로 분류되었다. 영역별 문화적 주제는 '낯선 군 문화에 던져짐', '힘겨운 시간', '집단 속에서 혼자서 버티기', '지을 수 없는 군 생활의 고통', '고통스런 삶을 벗는 마지막 선택' 이었다. 결과적으로 복무 부적응 병사는 현 상황을 벗어나기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입대 초기 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적응 중기에 미숙한 사건 대처 방법에 대해 가이드가 필요하며, 적응 실패 영역에서 군에서의 삶을 비판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인식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전략과 정신보건전문가의 근접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복무 부적응 병사를 돕기 위한 정신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살 예방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기대한다.

Abstract This qualitative research examined the experiences and patterns of military life of service maladaptive soldiers. The research site was the place where the soldiers of the A-adaptive soldiers' healing program were conducted, and the study period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16 to December 2017. Maladaptive soldiers' military life experience pattern was analyzed, and their experience consisted of three domains (early domain after joining the army, middle domain after joining the army, and last domain where they failed to adapt themselves), five cultural themes, 12 categories, and 29 attributes. The cultural themes of maladaptive soldiers in their military life experiences were as follows: facing unfamiliar military culture, hardship, being left alone in a group, pain becoming unbearable, and the last choice of leaving a painful military life. Maladaptive soldiers attempted suicide after they failed to overcome the psychological pain, but they needed help during their early period of adaptation. Moreover, during their middle period of adaptation, they needed guidance for their immature coping strategies, and ultimately they had misperceptions about their death together with a pessimistic view about their life.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mental nursing arbitration programs and suicide prevention projects to help service maladaptive soldiers.

Keywords : Maladaptive Soldiers, Military Culture, Ethnographic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본 논문은 1저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Eun-Joo Lee(Korea Bible Univ.)

email: smail2732@nate.com

Received July 13, 2020

Revised August 4, 2020

Accepted August 7,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군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의 증원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국방부에 권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최근 수용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1]. 우리나라는 군 복무 부적응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병사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와 해결 방법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병무청 국정감사자료에서 조기 전역자로 분류된 현역병은 8088명이고, 그 중 4461명이 부적응으로 그린 캠프나 힐링캠프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는데 이중 정신 질환, 성격장애, 복무 부적응인 병사가 전체의 81.9%를 차지한다고 하였다[2]. 기타 병사는 정신 질환 증상, 군 복무 곤란 질환자로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해 전역시켰으며 이중 안타깝게 자살로 목숨을 끊는 병사는 57명이나 되었다고 보고하였다[3].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자살 예방세미나 및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자살 및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 예방 정책과 병영문화혁신,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과거보다 자살자가 많이 감소 되었음이 보고되었다[1, 4]. 하지만, 여전히 군내 사망사고 1위는 자살로 그 문제는 심각하다[5].

자살은 복잡한 원인에 의한 현상이고, 자살의 핵심속성으로 반복되는 고통으로 인한 번민과 고통의 정점에서 삶과 죽음을 절단하는 시간이며, 고통 스런 삶을 정지시키려는 것이라 한다[6]. 이에,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군 생활 경험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반복적인 고통과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하고자 한다.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 경험은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문화를 이해하여 장병들이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간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7]. 복무 부적응 병사의 부적응 과정에 대한 군내 문화를 탐구하고 그 해결 과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경험하는 군 문화와 그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통합적인 해결 방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간호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신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살려, 자

살 고위험 병사들을 위한 치유환경을 조성하고, 따뜻하게 돌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정책제언이 필요하다.

2. 본론

2.1 연구목적

군 복무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한국군 문화 속에서 군 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에 있어 그 맥락과 패턴을 분석하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이해하여 부적응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간호 증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한다.

2.2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한국군 문화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 1) 한국 군대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 2) 부적응의 과정은 어떠한가?
- 3) 특징적인 패턴은 무엇인가?
- 4) 적응을 도울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3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군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과 삶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의 관점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서술하고 분석하여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 경험과 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4 연구방법

2.4.1 연구장소

본 연구 장소는 A도의 00지역 이고, 복무 부적응 병사가 적응의 어려움, 자살사고 등의 이유로 입소하는 기관으로, 이번 연구문제를 밝히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16개월 동안 342명의 복무 부적응 병사를 만났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숲 치료, 음악, 미술 치료 프로그램 등 다른 일정에도 참여하여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일상생활을 관찰하였다.

2.4.2 정보제공자

정보제공자는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 관습과 믿음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기준을 가진 정보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도표출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는 현재 복무 부적응 문제로 00캠프에 입소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받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복무 부적응 병사 12명이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Participants	Private	Age	Family type	Economic condition	Psychiatric diagnosis	Previous suicide attempt	Education
1	Private 2 nd class	20	Parents	High	Panic disorder	1	A university student
2	Private First class	23	Parents	Middle	Depression	0	A university student
3	Private 2 nd class	21	Single mother	Middle	Personality disorder	0	High school graduation
4	Private First class	25	Homelessness	Lower	Depression	3	A junior high examination
5	Private First class	22	Parents	High	Personality disorder	1	A university student
6	Corporal	20	Parents	Middle	Anxiety disorder	2	A university student
7	Private First class	26	Parents	Middle	Personality disorder	0	A university student
8	Private First class	25	Single mother	Lower	Anger control disorder	0	A high school examination
9	Private 2 nd class	23	Parents	Middle	Anxiety disorder	0	A university student
10	Private First class	21	Single mother	Lower	Depression	0	A university student
11	Private 2 nd class	21	Parents	Middle	military maladjustment	0	A university student
12	Private First class	22	Single mother	Lower	military maladjustment	1	High school graduation

2.4.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문화 기술적 연구기법으로 비형식적인 면담과 참여관찰, 심층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연구기간 동안 주 2회 연구 장소에서 342명의 부적응 병사를 만났고, 심층 면담은 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명의 정보제공자와 진행하였으며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본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의 방법은 처음에는 기술관찰을 시행하여 주변 사건 위주로 기술하여 큰 윤곽을 파악하였고, 집중관찰

시기에 복무 부적응 병사의 반복적인 패턴을 알게 되었으며 선별관찰 내용으로 부적응 병사의 위험요인, 보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획득하였다. 연구 장소에서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식과 태도를 관찰하였고, 부적응 병사의 그림, 조형물, 프로그램 활동지 등의 내용도 확인하였다. 집중참여 관찰 및 프로그램 활동 중 알게 된 현상에 대한 이해, 통찰과 직관적인 내용은 수시로 연구 노트를 활용하여 연구내용을 작성하였다. 복무 부적응 병사와 관련된 주변 동료 병사, 대대장, 군중 목사, 상담관, 캠프 관리자 등과 비공식 면담을 통해 복무 부적응 병사의 말과 행동이 심층 면담한 내용과 차이가 없는지, 상호작용 속에서 보이는 패턴이 없는지 주의해서 관찰하고 면담하여 연구 노트에 작성하였고, 관련 연구 자료를 수집하며 통찰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2.4.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radley(1979)[8]의 참여관찰과 면담에 대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자료 분석은 영역 분석, 분류 분석, 성분 분석, 주제 분석 과정을 통해 문화적 주제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단계는 영역 분석으로 문화적 지식의 큰 단위를 찾는 범주의 분석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분류 분석으로 집중관찰과 구조적 질문을 통해 각 문화적 영역들이 조직된 내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영역 분석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분류 분석을 통해 한 영역 내에 포함된 모든 용어의 관계와 한 부분이 전체와 연결된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영역 분석과 통합해 하나의 과정을 진행한다. 세 번째 단계인 성분 분석은 문화적 범주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찾는 과정으로 연구의 초점을 더욱 좁혀 몇 가지 문화영역 내 요소의 대조되는 부분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각 영역에서 용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제 분석은 확인된 영역의 관계를 통해 문화적 장면이라는 전체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찾아가는 단계로 결국 문화적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료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주제 및 의미의 탐색은 많은 영역에서 암묵적 또는 외현적으로 재현되고,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알게 되고, 영역 사이의 관계 및 부분들과 전체 문화 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작업으로 문화 기술지의 핵심이다.

또한 이런 일련의 자료들은 참여관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개별 심층 면담 자료, 현장 노트와 연구 노트, 일기, 복무 부적응 병사와 관련된 주변인과의 면담,

비공식 면담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해당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비교 수정하며 해석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자료의 문화적 주제와 패턴, 문화적 장면을 찾게 되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규명된 내용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명과 함께 내용을 분석하였고, 도출된 속성, 범주, 문화적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 군 병원 정신과 의사 1명, 군진 정신 간호학 교수 1명, 질적 연구 교수 4명에게 자문받았다. 또한 최종 연구결과를 부적응 병사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대대장, 주임원사, 캠프 관리자, 상담관, 부적응 캠프에 입소한 병사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였다.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HYI-16-134-3). 연구 장소는 관리자에게 허락을 득하고, 윤리적 보장을 위해 연구 시작 전, 자료수집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 연구내용, 비밀보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심층 면접 및 참여관찰 중 연구 참여 철회할 수 있고,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안내하였다.

2.6 연구의 엄정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수행과정 평가로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가치(Truth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기준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9].

2.7 연구결과

2.7.1 심층면접결과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생활 경험)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 경험에 대한 면담결과 3개의 영역, 5개의 주제, 12개의 범주, 29개의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3개의 영역은 '입대 초기', '입대 중기', '적응 실패'이고 입대 초기 문화적 주제는 '낯선 군 문화에 던져짐', '힘겨운 시간'이다. 입대 중기 문화적 주제는 '집단 속에서 혼자 버티기', '지을 수 없는 군 생활의 고통'이고, 적응 실패 영역의 문화적 주제는 '고통스런 삶을 벗는 마지막 선택'으로 확인되었다. 각 문화적 주제에 따라 확인된 범주와 구체적 경험의 속성은 Table 2와 같다.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군 생활 경험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징병제로 입대한 배경에서 낯선 군 문화를 새롭게 접하며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병사들은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적절한 대처 방법

을 취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복무 부적응 병사 중 자살시도를 하는 병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식의 왜곡 과정을 경험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7.2 참여관찰 결과

복무 부적응 병사의 집단에서 16개월간 참여관찰 한 결과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에서 두 가지 일정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누구나 특수한 군 환경에 입대한다. 비슷한 문화에 놓여 있지만, 두 가지 부적응 패턴으로 나누어 관찰되었다.

먼저, A 패턴은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Fig 1>과 같은 부적응 과정을 겪었다. 이 집단은 다양한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입대하여 군 생활 적응이 힘들지만, 복무 의지가 있었고, 자기 문제해결 방법에 관심 가지고 있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낯선 군 환경에서 가정적, 금전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군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지만, 적응하기 위해 나름 버티는 시간도 가졌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훈련에서 자주 빠지게 되고, 잦은 병원 진료 등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낙인을 받고 관계에서 고립되었다. 이 시간이 지속 되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하고, 결국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B 패턴은 <Figure 2>와 같이 명확한 원인이 없는 집단으로 군 복무 자체가 싫은 집단이었다. 이들은 본인에게 낯선 군 문화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입대 후 모든 활동을 거부하고, 수시로 자살 충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 집단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군 복무를 벗어나기 위한 절차인 현역 부적합 심의에 관련된 심리검사 결과, 군의관 소견, 상담관 소견, 심의 결과 등의 절차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 집단은 자살시도 위험성이 높고, 군 복무 의지가 없으며 전체 부대 운영에 큰 부담이 되어 모두에게 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A 패턴과 달리 자살시도까지 과정이 매우 짧고, 군에서 활동을 거부하고, 본인의 적응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Military life of maladjusted soldiers

Domain	Theme	Category	Attribute
The initial period of enlistment	Facing unfamiliar military culture	Helplessness	Not being able to help family because of being cut off from the world
			Introvert personality with a perfectionist disposition and emotional instability
		Military life exhausted by control and surveillance	Feeling furious because of being forced to serve the military
			Inability to cope with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sense of the people around me.
			Feeling like being incarcerated
	Hardship	Gradual mental exhaustion	Environment requiring to get a permission for every day-to-day activity
			Having to endure unforgettable verbal abuse
		Being increasingly mentally exhausted	Revived memory of being bullied in school because of predecessors' bullying
			Feeling uneasy because of being forced to be vigilant to others' needs
		Being accused of feigning illness for the evasion of duties	Feeling guilty of not being able to join the training with one's peers
The mid-term period of enlistment	Being left alone in a group	Being excluded from duties and training as routine	Not being able to tell others about illnesses because of the fear of being suspected
			Feeling offended by others' suspicious eyes for the illnesses
		Adopting one's own strategies	Physical symptoms (e.g., stuffy chest and insomnia) being displayed because of severe mental stress
			Frequent medical treatments and hospitalization leading to malicious rumors
			Ignoring others and being oneself regardless of their bullying
	Pain becoming unbearable	Being stigmatized as looser	Idling around
			Asking for a transfer but ending up in the repeated failure
		Suffering from exclusion and isolation	Asking for help such as counseling and psychiatric treatment but ending up in no improvement
			Not being able to sleep because of the stigma attached
			Being treated like an invisible
Adaptation failure	The last choice of taking off a painful military life	The despair of a miserable military life	Beginning to feel panic when being with others
			Worsened a sense of exclusion and isolation
		Mixed feelings about my unjust life	Beginning to lose few helping hands because of their tiredness
			Lack of strength to endure a hopeless military life
			Feeling like an asshole
	A decision to end a meaningless life	Not being able to live daily life due to various physical symptoms	Not being able to control emotions in despair, frustration, and lethargy
			Having nothing to live for
		Being preoccupied with the idea that death will solve everything	Being preoccupied with the idea that death will solve every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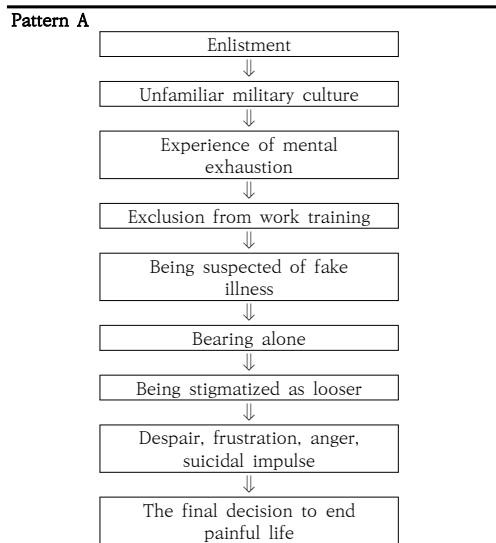


Fig 1. Pattern of military life of maladjusted soldiers

Pattern A : Pattern A indicates a group of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such as family problems, money problems, bullying, and psychopat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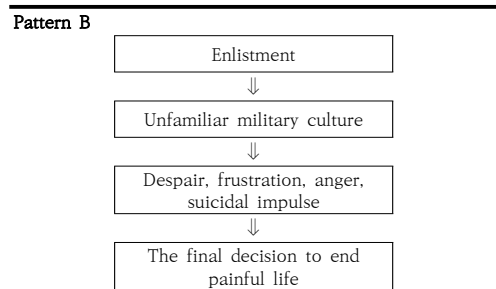


Fig 2. Pattern of military life of maladjusted soldiers

Pattern B : Pattern B indicates a group of people with no preexisting conditions but with a propensity to feel incompatible with military life.

부적응 병사는 00 캠프에서 생활하며 치유 프로그램을 받지만, 캠프 퇴소 1-2일 전에는 자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공통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무 부적응 병사 중 현역 부적합 심의 결과(전역, 보충역 등으로 변경)를 알게 된 병사들은 편안해 보이기도 하였다. 일부 병사들은 정신적 문제로 인하

여 초기 전역하는 상황에서 이후, 직장생활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2.8 논의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와 참여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 경험과 적응을 위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2.8.1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 경험

연구에서 밝혀진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군 생활 경험은 '낮선 군 문화에 던져짐', '힘겨운 시간', '집단 속에서 혼자 버티기', '지울 수 없는 군 생활의 고통',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입대 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 병사가, 군대라는 새로운 문화 조직에 들어와서 겪는 적응 과정의 어려움이었다. 그것은 국방의 의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군 생활에 대한 비판적 인식, 내무실에서 겪는 강압적 환경으로 인한 위축감, 적응하려 노력하지만 미숙한 방법으로 실패, 이로 인한 고립, 극복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하였다.

'낮선 문화에 던져짐'의 주제는 군 복무에 대한 부담감과 답답함으로 또래 병사들 누구나 겪는 부담감이다. 남학생의 경우 거주 형태별로 자살시도 요인이 높아지는 청소년 자살시도 요인과 같이[2], 군부대 거주지의 낮선 환경은 병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한 연구에서 병사들은 환경 변화와 군 문화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며 욕구가 좌절될 때 사고가 발생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0]. 적응을 잘하는 병사들은 또래 집단인 동기 집단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그곳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복무 부적응 병사들은 사회에서부터 혼자서 지내는 성향(은둔형 외톨이)이 강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기 집단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입대 초기 적응 시점에 동기 집단과의 인간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힘겨운 시간'의 주제는 신체, 정신적 건강문제, 정신적 적응의 어려움, 복무 기피에 대한 의심, 다양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피병이라고 의심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복무기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연구에서 정신적 어려움은 복무 부적응, 자살 생각, 자살 유발요인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11, 12]. 이 정신적

어려움은 징병제를 취하는 한국군의 문화적 특성으로 모병제(자발적 입대)를 취하는 미군과는 다른 독특한 권위적, 가부장적 한국군 문화적 요인이 있다[13]. 미군은 병사의 신체,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개인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회복 탄력성, 의사소통 유형의 개방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14]. 하지만 우리나라의 군 문화는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혼자서 감내하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문화이다. 복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응 초기 영역에서 미군 체계와 같이 심리적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15], 부적응 병사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집단 속에서 혼자서 버티기' 주제에서는 부적응 병사는 정서적으로 힘들고, 각종 업무와 훈련에서 빠지며, 본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짐을 알고도 고통스럽지만 참고 있는 과정이었다. 혼자서 버티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움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선행 연구에서 부적응 병사에 대한 문제로 성격, 질환, 인간관계의 역량 부족 등 부적응 병사의 개인적 문제점 위주로 보고되었다[16, 17].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복무 의지가 있으나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노력하려는 과정이 있고, 자신만의 생존법으로 그 집단에서 적응하고자 하는 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잘되지 않고 상담,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적응 과정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병사의 연구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의 문제해결을 위해 보직변경, 타 부대 이동, 그린 캠프 입소 등으로 적응을 유도하지만 거의 실패한다고 한다. 일부 다른 논문에서는 상사와 동료의 적극적인 지지의 중재효과가 군 적응에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3, 18]. 부적응 병사에게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보다는 내부 조직에서 적응을 위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적응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자서 버티는 병사의 적응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울 수 없는 군 생활의 고통'의 주제에서는 주변 동료에게 낙인을 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군 생활의 배제와 고립감 속에 고통스러워한다. 이 단계는 조직 생활의 부적응 시점으로 무리에서 이탈된 상태로 볼 수 있다. 낙인 문제는 부적응 요소와 관련이 깊어 선행논문

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고되고 있다[12, 18, 19, 20]. 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개인적 성향의 병사들은 단체생활에서 힘겨운 적응 과정을 거친다[21].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그 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의 시선은 늘 혼자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 싫어하는 동료를 이해하는 것 보다 신경 쓰지 않는 방법을 취하거나, 무리에서 배제 시킨다. 시간이 길어지면 부적응 병사는 주변 동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부적응 병사는 동료와 관리자에게 낙인찍히게 된다. 이후 인간관계, 이미지 회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부적응 병사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문제가 된다. 고립과 소외감은 선행 연구에서 자살 생각과 연관되며 이것은 부적응 병사의 자살 선택의 과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으로 보고되고 있다[1, 22, 23]. 단체생활의 적응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 성향의 병사들에게 군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간격을 메워주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자살회복 과정 연구에서 고립된 인간관계에서 태도 변화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치유가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개인 간 성격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면 인정과 화해, 타협이라는 단어로 군 문화가 더욱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24].

‘고통스런 삶을 벗는 마지막 선택’의 주제에서 부적응 병사들은 점점 정서적으로 소진되어 자살의 방법을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부적응 병사들은 수면장애, 무기력, 불안, 우울, 분노, 좌절, 포기, 충동 등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는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나타냈다[25, 26, 27]. 특히 적응을 위한 노력의 좌절로 인한 고통과 절망은 현재 상황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선행 논문과 비슷한 결과이다[6, 28].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주변 환경 및 사람에 대해 작은 행동과 언행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죽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인식된 것이었다. 이는 청소년 자살 연구와 관련된 우울 및 인지적 오류와 비슷한 부분으로 비합리적 신념이 작용하는 것으로[29], 자살 예방 교육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 오류 부분의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연구에서 자살시도 직전의 증상 중 자살 충동을 호소한 병사들의 자살시도 방법이 훨씬 치명적이었는데, 선행논문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므로 자살 충동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 전략이 필요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26, 30].

일부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가벼운 자해나 자살시도는 주변인에게 복무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고통스런 육체적, 심리적 상황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극단적 선택이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과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 여러 기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자살 예방 정책을 세우고, 관련 연구를 하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1, 4].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와 개별 맞춤형 정책 및 프로그램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2.8.2 복무 부적응 병사의 적응 전략

2.8.2.1 병사 개인의 특성 파악

선행논문에서 개인, 가정, 환경적 요인에 따라 미리 식별하여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개인 심리 요인별 특징적인 자살요인이 있음으로 이에 근거하여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21, 26, 31, 32, 33].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군 조직의 목표와 목적에 맞는 구조화된 인간의 기능성을 추구하는 군 문화를 가지고 있다.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국가를 위한 기능화 된 병사의 임무에서 발전시켜, 개인의 성향과 성격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부적응을 돕기 위한 다각도의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군 문화는 인터넷과 정보 통신이 발달한 우리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병영 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에 힘입어 복무 부적응 병사의 문제는 병영문화 혁신 의지로 부대 환경, 폭력, 폭언으로 인한 자살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개인적 문제, 질병, 개인 성향으로 인한 자살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군 자살의 원인에 대한 국방부 자료에서 개인 요인은 환경요인의 4배를 차지한다고 하였다[32]. 부적응 병사들이 인식하는 분노, 자기비하, 우울 문제, 관계사고 등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고가 왜곡되어 발생된 것이다. 사람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방법에 차이가 있고, 대응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부적응 병사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패턴과 핵심신념을 확인하고, 그들의 왜곡된 인식을 변화시킨다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병사들의 극단적 선택인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8.2.2 죽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연구결과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는 삶의 도피처이고,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과 죽음에 대한 강력한 인식과 신념 체계를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자살시도 직전 병사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죽음이 삶보다 쉬운 선택이었다. 자살 충동은 삶의 본능을 넘어섰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인식이 작용하였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의미를 상실한 사람이 영혼의 재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자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34]. 이런 인식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입대한 장병들에게 죽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살 예방 교육의 방법으로 어린 시절부터 단계별로 죽음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 이후 자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35]. 내부에 견딜 수 없는 불행과 삶의 고통을 남에게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자살이라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한다[36]. 힘든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죽음을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37]. 의과학계는 물론 철학, 심리학, 종교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통적인 내용으로 죽음에 대해 배우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38]. 병사들의 자살시도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었다. 자살 인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도 고려되고 있다[39].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집약되어있는 군에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하여 반복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8.2.3 다양한 전문 자원의 근접 활용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또한 복무 부적응 문제와 복무 기피로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군 복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사복경찰까지 동원하고 있다[40]. 복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기관을 두고, 장기간 관찰 치료 및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결과를 군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41]. 미국 또한 전 세계에서 실전 경험을 가진 퇴역한 군인들의 정신 문제가 심각하여 국가적, 민간적 자살 예방 관련 기관

과 연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근접해서 도와줄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42].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상담관 확대 정책 및 군 정신 보건 센터 추진으로 점차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선 관리자들은 실질적이고, 응급한 상황에서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료 병사는 부적응 병사를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돕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운 대상이 된다. 해당 부대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 전우조(24시간 근접 관찰)를 운영하며 지속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부대 상담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외부 전문적인 기관의 근접 도움으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복무 부적응 등 정신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에서는 상담관의 대대급 확충 계획, 군 정신보건센터의 추진 확대 등 군의 적극적인 내부 군 문화 혁신을 위한 다각도의 일을 실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1년 국군수도병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6년 양주병원, 2019년 전방소재 군 병원에 군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19]. 병원급 정신보건센터의 창설에 따른 역할에 있어 전문적 도움이 24시간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충분한 인력으로 장병의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신 간호장교는 군 특수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인력이다. 군부대는 대대 단위로 의무실이 있고, 군의관 1명과 의무병이 대대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43]. 인력과 예산 등 다양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지만, 대대급 의무실에 정신 전문 간호사가 배치되면 대대 단위의 신체, 정신적 문제를 1차적으로 근접하여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현재 군 의료 현장에서 간호 인력은 의료법의 적정인력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 관리료 차등제 적용에서도 자유로워 군 병원 구조조정에 따른 간호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44]. 부족한 간호 인력을 채워서 수준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방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복무 부적응과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이 근접해서 있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적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인, 정신 보건 간호장교와 민간 정신보건간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복무 부적응 병사는 군 생활 경험 속에서, 한국군 문화의 통제되고 억압된 환경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고통스런 상황을 끝내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패턴을 관찰하였다. 복무 부적응 병사는 청소년기에서부터 불안정한 가정 환경, 학교폭력, 왕따 등의 이전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 환경과 비슷한 단체 생활인 군 복무에 대해 처음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입대하였기 때문에 군 생활의 시작부터 부정적인 인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장병들은 부대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한다. 목적 지향적인 군대의 일원으로 24시간 함께 단체 생활을 하는 복무 부적응 병사는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 되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은 업무와 훈련에서 반복적으로 열외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동료들로부터 배제당하고 낙인찍히게 되어 결국 고립되었다. 혼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였다. 복무 부적응 병사는 자살을 선택하기 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인식이 왜곡된 성향을 보여주었다. 과도하게 개인적이고, 우울하며 자기 연민에 쌓여 있고, 피해 의식과 잘못된 관계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비하에 빠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자살 충동을 수시로 느꼈고, 결국 자살을 실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복무 부적응 병사들은 한국군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판적 시각, 갈등 상황에 대한 미숙한 대처 방법, 적응을 위한 개인적 노력, 적응 실패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식의 왜곡, 자살 충동, 마지막 해결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복무 부적응 병사는 적응 초기에 군 환경 적응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과 적응 중기에 미숙한 대처 방법에 대해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응 실패 영역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관한 인식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특징을 파악하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며 대대 단위에 정신보건간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근접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basic course of the Korean Army's suicide prevention program. QPR Institute. 2017.
- [2] J. H. Lee, 'Why are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disqualified from active duty doubled in a year', 2015.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719.
- [3] S. Lee, "An integrated plan to prevent soldiers from committing suici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2016.
- [4] B. S. Choi,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ilitary suicide prevention system".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8.
- [5] National Indicator System (K-indicator). Status of Military Deaths. 2018.
- [6] M. H. Ko, M. O. Lee, M. S. Yi, "A phenomenological study on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in suicide attempt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22, No.4, pp.339-348, 2013.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4.339>
- [7] M. Leininger, Leininger's theory of nursing : culture care diversity & university. *Nursing science Quality*. 1, pp.152-160. 1988. DOI: <https://doi.org/10.1177/089431848800100408>
- [8] J. Spradley,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oot & Winston. 1980. DOI: <https://doi.org/10.1525/aa.1980.82.4.02a00790>
- [9] Y.S. Lincoln, E.G.Guba. Effective Evaluation(4th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1981. DOI: <https://doi.org/10.1177/109821408200300406>
- [10] J. S. Na, Y. K. Lee, S. Y. Hwang, G. Y. Jung, Y. H. Nam, Y. H. Gwon, "An in-depth interview study on ROK army private soldiers' adaptation to the military life",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26, No.1, pp.1-12, 2008. UCI : G704-SER000015437.2008.26.1.010
- [11] B. H. Song, "The study on the military organization maladjustment prediction",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Journal*, Vol.22, No.2, pp.118-223. 2013. UCI : G704-001378.2013.22.2.006
- [12] D. J. Oh, S. D. Lee, "Review of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e and suicide-related behavior in military personnel",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Vol.23, No.1, pp.11-21. 2017. DOI: <https://doi.org/10.22802/jksbtp.2017.23.1.13>
- [13] Robert, M. H. "Complexity leadership: New conceptions for dealing with soldier suicides", *Military Review*, Vol.91, No.1, pp.36-46. 2011.
- [14] U. S. Army. Leader's Guide for Risk reduction and

- suicide prevention. TRADOC Pamphlet pp.600-622. 2013.
- [15] U. S. Army. Army 2020: generating health and discipline in the force ahead of the strategic reset. Virginia: U. S. Department of the Army. 2012.
- [16] J. H. Yoo, *Maladjustment-inducing characteristics by the suicide risks of soldi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Gyeonggi-do. 2014.
- [17] S. Y. Jeong, D. G. Le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oldiers at suicide risk",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3, pp.897-914.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3.201106.897>
- [18] S. M. Jeong,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ilitary mal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ungji University, Seoul. 2016.
- [19] D. J. Oh, M. Jo, Baik S. C. "Overview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suicide prevention program and implications for Korean Armed Forces",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56, No.2, pp.55-60. 2017. DOI: <https://doi.org/10.4306/iknpa.2017.56.2.55>
- [20] H. K. Yoo,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anxiety and stress of soldiers on their adaptation to militar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13.
- [21] E. J. Lee, E. G. Yoo.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 of attempted suicide by maladjusted soldiers". *Journal of Korea academis-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4, pp.329-341.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4.329>
- [22] M. H. Kwon, W. I. Kim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alien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litary soldiers: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12, pp.493-514. 2015. UCI : G704-000387.2015.22.12.014
- [23] J. S. Kim, I. H. Song, "Comparison of national strategies for suicide preven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33, No.1, pp.513-546. 2013.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3.33.1.513>
- [24] G. H. Nah, G. S. Han,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covery process of soldiers who experienced suicide-related behavior before joining the arm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35, No.4, pp.589-615. 2016. DOI: <https://doi.org/10.22257/kjp.2016.12.35.4.589>
- [25] S. S. Koo, "A study on mental health of new generation soldiers",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Vol.24, No.4, pp.64-93. 2006. UCI : G704-000500.2006..24.005
- [26] J. M. Lee, *The study on the effective vision camp program for improving the military service adjustment of unadjustable soldi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10.
- [27] M. H. Lee, "A study on the suicidal perception of soldiers who need intensive care in the healing camp",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33 No.2, pp.75-93. 2018.
- [28] W. C. Jeong, Y. J. Park, "Overview of research trends in military service adjustment of soldi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1, pp.49-71. 2011. UCI : G704-000387.2011.18.1.007
- [29] D. K. Moon, Y. H. Kim,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triggering variables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3, pp.945-96.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3.201106.945>
- [30] E. K. Park, K. H. Choi. "The effectiveness of ayurveda program on self-concept and self-realization of teens' mothe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2, pp.925-942. 2014. DOI: <https://doi.org/10.15703/kjc.15.2.201404.969>
- [31]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ilitary suicide prevention system. 2008.
- [32]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The current state of suicide in the last 10 years. 2014
- [33] S. H. Lim, "Soldiers' suicidal psychology that appeared in suicide note", *The Korean Academ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Vol.8, No.3, pp.182-188. 2014. UCI : G704-SER000002272.2014.8.3.004
- [34] Y. H. Lee, "A qualitative research about the suicide attempt and the suicide thought which reservists had suffered during military service", *Korean Academy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Vol.5, No.2, pp.61-93. 2011. UCI : G704-SER000002268.2011.5.2.004
- [35] J. T. Oh, Life and death studies & suicide prevention: Ask life and death for directions. Book publishing paper mirror. 2010.
- [36] Martin Monestier. Everything about suicide. Seum. 2015.
- [37] Shelly Kagan. DEATH. Eldorado Publisher. 2012.
- [38] EBS death production team Death, EBS Docuprime Life and death exploration big project "Death". 2014.
- [39] Seoul City Suicide Prevention Center. The suicide and mental illness crisis management protocol. 2016.
- [40] L. Shelef, D. Kaminsky, M. Carmon, R. Kedem, O. Bonne, J. J. Mann, E. Fruchter,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 among Israeli Defense Forces soldiers: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Affect Disorders* .Vol.186, No.2, pp.232-240. 2015. DOI: <https://doi.org/10.1016/j.jad.2015.07.016>
- [41] L. Shelef, L. Laur, E. Fruchter, Characteristics of the suicidal soldier in the Israeli Defense Force—a review of literature, *Disaster And Military Medicine*, 10. 2015. DOI: <https://doi.org/10.1186/2054-314x-1-10>

- [42] U. S. Army. Health Promontion, Risk reduction, and Suicied prevention,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pp. 600-624. 2015.
- [43] D. W. Moon, "The problems of Korean military health system and it's reform strategy",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Vol.10, No.2, pp.85-113. 2017.
- [44] A. S. Park, "Effects on job satisfaction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nursing officer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30, No.1, pp.112-127. 2012
UCI : G704-SER000015437.2012.30.1.007

이 은 주(Eun-Joo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 학사)
- 2013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정신보건간호학 석사)
- 2018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2년 3월 ~ 2015년 7월 : 국방부 육군 간호장교
- 2019년 3월 ~ 현재 :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부적응, 자살, 질적 연구